

농협 축산경제의 새 선장, 김태환 대표를 만나다

고객홍보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우리나라 축산업의 큰 기둥 중 하나인 농협 축산경제 부문에 김태환 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안팎으로 정신없는 상황에 선두에 서게 된 만큼 그가 잡아 나갈 방향이 어떠할지, 이 배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 등급정보 365*에서 그를 만나 보았다.

축평원(이하 축) :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취임하셨지요? 그새 취임하신지 두 달여가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태환 대표(이하 김) : 감사합니다. 취임 후 명절 성수기에 구제역 등의 방역 관련 건까지 당면 현안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 : 농협은 1983년 중앙회에 입사하며 연을 맺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후 쪽 축산 분야에 몸 담아 오셨지요?

김 : 그렇습니다. 당시 축협 중앙회 입사로 축산 분야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형님이 우리 축산업의 미래가 밝고, 축협중앙회가 설립됐는데 추후 직장으로 매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고 추천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하던 시절만 해도 축산업은 지금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양축가와 많은 선배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제가 입사하던 시절에 비해 매우 크게 성장했지요. 우리 축산은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충분히 성장가능하고 미래가 밝은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축 : 그런데 현재의 우리 축산업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축산업의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농협축산경제 대표로 취임하시게 되셨는데요,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김 :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축산업은 생산기반 약화, 규제 강화, 가축질병에 FTA, 내수경기 침체까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축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축산경제는 ▲정도경영, ▲공감경영, ▲화합중시를 3대 경영기조로 삼아 운영하고 있으며, '제2의 창업'을 각오로 모든 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조합과 농가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축 : 다른 건 키워드만 봐도 무엇을 지향하시는지 알 수 있을 법 합니다만, '공감경영'은 여전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김 '공감경영'은 전 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변화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는데 이바지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소통'이 있지요.

족 '소통을 통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 네. 먼저, 저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영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경영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제목이 '으랏차차 현장 톡톡'인데, 기존처럼 대표이사가 현장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사료 작업 현장이나 육가공 현장 체험도 하고, 직원들과 치킨이나 육포, 소시지 등도 나눠 먹어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직원들만 괜찮다면 제가 직접 먹여 드리고 싶습니다.(웃음)
아울러 조합과의 '공감'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공감경영'의 의미는 내부 방침을 넘어서 중앙회와 조합, 조합과 조합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앙회와 조합은 사업 경합을 줄이고, 역할 분담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조합과 조합 간에도 '부익부빈익빈'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축협이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할 것입니다.

족 조합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쭙자면, 1월에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인터뷰를 했는데 걱정이 많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일련의 사건들 이후 농협 내 축산 분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년 2월 축산경제 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 먼저,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축산경제 대표이사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사료는 본부장급 이상 전 임원진을 교체하고 5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80% 이상 교체했으며, 문제가 된 업무에 있어서는 외부기관의 업무위탁까지 검토하는 등 쇄신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쇄신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협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00년 통합 당시 193개였던 축협이 139개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139개 축협과 더불어 '양축농가의 실익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중앙회, 축협-양축농가 모두 경영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공존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족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이신 만큼 농협 내를 넘어 우리 축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대외 환경에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앞서 언급하신 어려움들만도 여럿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인지라 우리 축산물 소비환경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가 제일 궁금합니다.

김 일단, 현재 한우가격이 고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자칫 저가의 수입산 '대체효과'가 일어날까 우려스럽습니다. 높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농가에 이득이 되어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 확대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들은 동물성 식품에 비해 그 흡수율이 낮아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방영된 MBC 다큐스페셜 '채식의 함정' 편을 보면 채식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9명 중 8명이 체지방과다, 근육량 저하, 비타민D 부족으로 나타났고, 몇몇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빙'이란 단어와 더불어 채식 열풍이 불며 육류 섭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요. 잘못된 지식에 기인한다면 진정한 웰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육류섭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우며 오해를 풀고, 육류 소비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 말씀 중에 수출 확대를 언급하셨는데요, 해외시장으로 시장을 넓히며 FTA의 파고에 맞서시겠다는 건가요?

김 네, 우리 축산업의 최대 강점은 '품질'에 있습니다. 최근의 고 가격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고는 하지만, 꾸준히 우리 한우/한돈이 사랑받는 데는 수입산보다 뛰어난 품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는 우리 한우가 화우와 비슷한 프리미엄급으로 취급받는 현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은 항상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관세제로화 시대'에 진입하면 수입산의 가격이 현 시세보다도 40% 정도 하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려 합니다. 특히, FTA 등 개방정책으로 자급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가의 원가절감

방안 등을 고심해 자급률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 끝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등급정보 365* 독자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등급정보 365*'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축산경제와 각 축협의 주인이자, 소중한 일원인 축산농가에 사랑과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로부터 받는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축산부문의 자율성 및 전문성이 지속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FTA가 본격화되고, TPP가 추진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농협과 농가 그리고 축산단체가 함께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 주체별로 자기 역할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FTA를 'F to A'가 되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도록 저와 농협 축산경제 임직원은 농가가 농협의 역할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승영**

